

광주-전남 교육청 부지 매입 갈등 '종료'

분쟁조정위 조정안 수용

346억 이자 年 3%→1.41%

광주교육청 14억원 이자 절감

광주예술고교 이전 '탄력'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공공부지 매입' 갈등이 일단락됐다. 부지매입 이자율을 놓고 양측이 6개월간 대립했으나,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조정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입대금 346억원의 이자율을 기존 연 3%에서 1.41%로 변경한다.

분쟁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된 이자율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지난 5월 3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광주시교육청은 매매대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주문했다. 이자율 변경에 따라 시교육청은 약 14억원의 이자

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갈등은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을 시·도교육청과 분쟁위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높은 이자율이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뒤늦게 규정이 개정된 것을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이 이자율 재조정을 요구했으나 전남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지속됐으며 국감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10월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감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이자율 갈등에 대해 "형제끼리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 원만한 합의하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설득에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계약대로 했으면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법대로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장만채 교육감은 "항상 그동안 광주에 양보하고 희생했다"며 "이번에도 가능한 양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교육감도 "이자율이 조정되면 분할 납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화답해 실마리를 풀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한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가 지난달 3일부터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1개월째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발굴 현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암매장 발굴 한달째 유해 못찾아

교도소 철책 주변·화순 너릿재 인근 도로 등 조사 확대키로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을 맞았다.

재단은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교도소 철책 주변, 화순 너릿재 인근 도로 등지로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3일 5·18재단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로부터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5·18 희생자 유해 발굴 승인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재단은 올해 교도소 암매장 약도를 찾아낸 것을 계기로 발굴조사를 추진했다. 이 자료는 지난 1995

년 5월29일 서울검찰청에서 진행된 '12·12 및 5·18 사건' 진술조사에서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본부대대 소속 김도 소령이 시신 12 곳을 묻었다는 곳을 직접 그려 제출한 약도다.

5·18재단은 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117m 구간을 1차 대상지로 삼고 발굴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스배관 등이 발견됐을 뿐 흔적은 찾지 못했다.

재단은 새롭게 교도소 담장 철책 바깥쪽, 순찰로 인근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너릿재 터널 인근 도로도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

5·18묘지 '이달의 민주 유공자' 故 김태진 전 전남대 학생처장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달의 5·18민주 유공자'로 고(故) 김태진 전 전남대 학생처장을 선정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되고 전남대에도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몸이 불편한 당시 민선시 총장을 대신해 학내 업무를 처리했다. 김씨는 같은 해 7월3일 내란소요 방조죄 등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1997년 2월 62세로 사망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시·도 교육감 "누리에산 전액 국고지원해야"

'쟁점 예산' 포함 반발...정부 원안 통과 촉구 성명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교섭단체 여야 3당이 정한 '쟁점 예산'에 포함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전액 국고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없이 무리하게 누리과정 운영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누리과정 탓에 교육현장에 다시 혼란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30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예산안 쟁점사항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데 따른 반발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쟁점예산은 여·야 합의를 이뤄야만 편성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급속도로 증가해 2013년 3조 원이었던 지방채가 2017년 현재 13조 원을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지속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또 "이를 위해 국회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조여원을 책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본격 겨울 추위...이번주 눈·비 잦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4일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광주·전남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목포, 신안 지역은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으며, 광주와 나주 등 일부 전남지역에서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5일에는 중국 북동쪽에서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6일부터 목포, 여수, 진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주말까지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는 등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7~8일에도 비 또는 눈이 오겠다"며 "5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도관 동파 등 한파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5 달뜨기 18:13
해질 17:20 달지기 07:35

매서운 바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해해 기온이 떨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기온	최고/최저	구름	비
광주	기온	8/4	보	성
목포	기온	5/7	순	천
여수	기온	6/10	영	광
나주	기온	2/7	진	도
완도	기온	6/9	전	주
구례	기온	2/8	군	산
강진	기온	3/8	남	원
해남	기온	2/8	혹	산
장성	기온	2/6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면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1.5~2.5
	면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눈	높음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한때나쁨	한때나쁨
미세먼지	

주간 날씨

날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	☁	☁	☁	☁	☁	☁
기온	-3/4	-1/9	1/9	0/7	-1/7	-2/7	-3/5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벌교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 뷰음용멸치 250g **6,100 원**
-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 뷰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 뷰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 진미역 250g **3,8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 히팅육 소고기맛 **4,500 원**
- 제품 설명: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우터머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주)벌교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왕암길 185-05 Tel. 061)745-9907

- 꼬막볶음교초장 **5,850 원**
-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물기업인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경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환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김경경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송양배

구 매 문 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벌교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물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 원**
- 전복분말(개당) **15,000 원**
- 조개분말(개당) **7,000 원**

(주)아침가리 대표 김영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